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 스토킹 범죄 현황 분석

김미선 선임연구위원

- ▶ 스토킹은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 감시, 연락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범죄임.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통제와 괴롭힘이 지속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
- ▶ 따라서 본 브리프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 지역의 스토킹 범죄 발생 추이와 피해 특성, 수사기관의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 단, 경찰청 범죄통계는 발생 및 검거 중심의 통계로 신고·인지된 범죄 사건에 한정되며, 통계상 해당 연도가 스토킹 피해 발생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CONTENTS

- I.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
- II. 스토킹 범죄 피해 특성
- III. 수사기관의 사법처리 현황 및 구조적 한계
- IV. 정책적 시사점

## I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

### 1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의의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스토킹을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반복적인 전화·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행·협박은 「형법」 등 개별 행위 중심으로 처벌되었음.
- 그러나 스토킹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 범죄로서, 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스토킹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확산되었음.
- 이에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약 22년 만인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윤정숙 외, 2023: 21). 동법은 반복적인 접근, 감시, 연락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긴급음급조치 및 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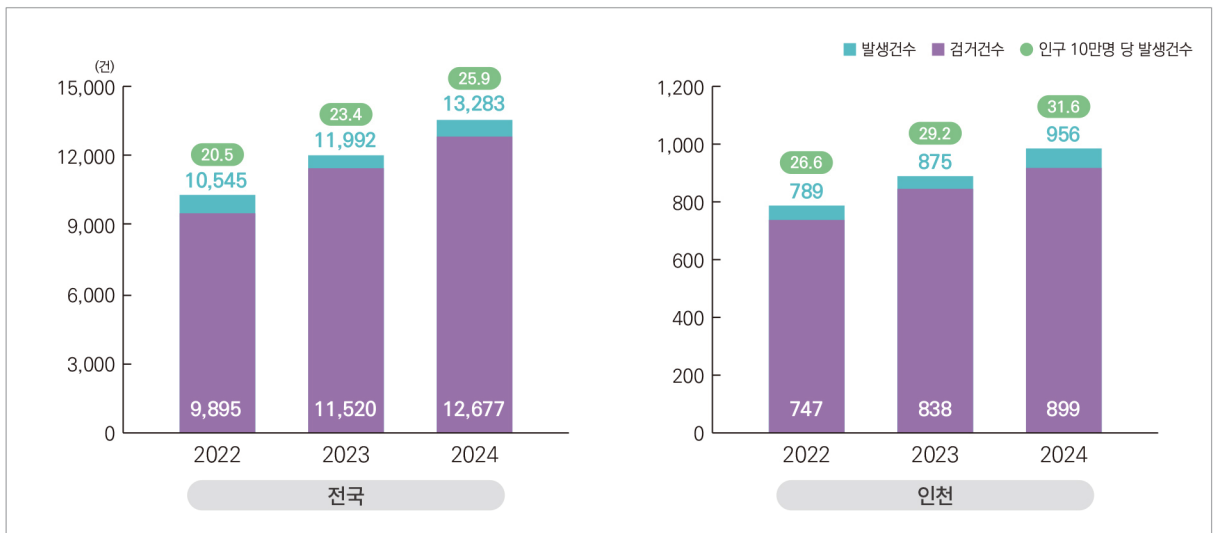
※ 본 정책브리프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2025년에 발간한 「인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황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책브리프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음.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 정보 유포, 합성 등 온라인 기반 스토킹 행위까지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응 범위도 확대함.

- 스토킹이 독립된 범죄로 규율됨에 따라 지역 단위의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 생산도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발생 현황과 피해자 보호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2 스토킹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전국의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0,545건에서 2024년 13,283건으로 약 26% 증가하였고, 인천도 같은 기간 789건에서 956건으로 약 21% 증가하였음.
-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천은 2022년 26.6건, 2023년 29.2건, 2024년 31.6건으로 전국 평균 보다 매년 약 5~6건 높은 수준을 보임. 즉, 인구 규모를 고려할 경우 인천 지역의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인천 지역 스토킹 범죄의 검거율은 2022년 94.7%, 2023년 95.8%, 2024년 94.0%로 나타남. 이는 스토킹 범죄가 전·현 연인, 지인 등 관계 기반 범죄의 특성으로 가해자 특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스토킹 범죄는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피해자의 신고 의지, 경찰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 등에 따라 발생 건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천 지역이 전국 대비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많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법기관 등 외부로 드러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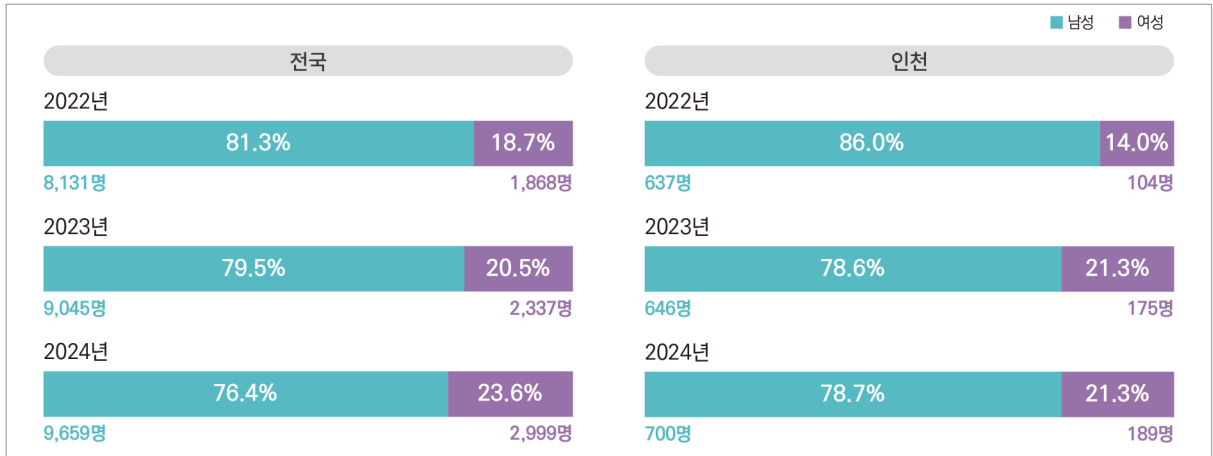


[그림 1]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

주: 검거율=(검거건수/발생건수)×100

## 3 스토킹 범죄 피의자 성별·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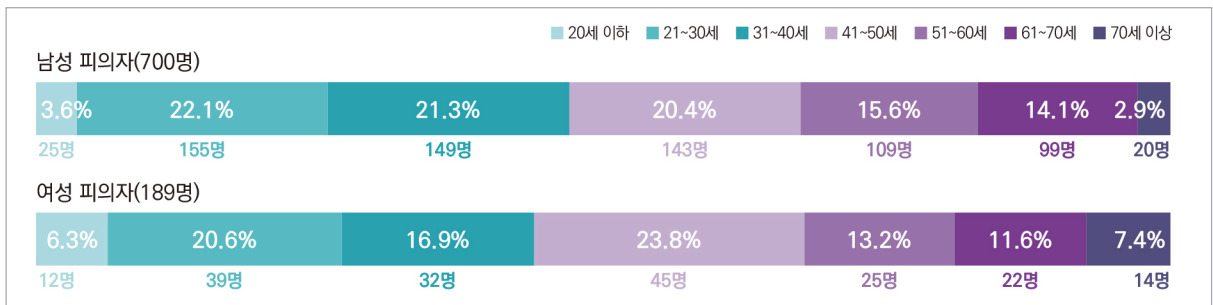
- 인천 지역 스토킹 범죄 검거인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피의자 중 남성 비율은 2022년 86.0%, 2023년 78.6%, 2024년 78.7%로 스토킹 범죄가 주로 남성 중심의 범죄 구조를 띠고 있음. 한편 전국 기준 여성 피의자 비율은 2022년 18.7%에서 2024년 23.6%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천 역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남.
-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 피의자 비율 증가를 단순한 수치 변화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른 스토킹의 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함. Suzuki(2024)와 Lee & Park(2025)에 따르면 여성 가해자는 관계 단절 이후 온라인·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감정적·충돌형(단기) 스토킹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반면, 남성 가해자는 애착 결핍, 관계 지속 욕구 및 통제 성향 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 현황을 분석할 때 단순히 성별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성별에 따라 범죄 발생의 맥락과 폭력의 지속성, 위험 수준, 피해 양상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2] 스톡킹 범죄 검거인원 성별 분포

주: 성별 미상을 제외한 수치임

- 2024년 기준으로 인천 지역 스톡킹 피의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21세~30세(22.1%), 31세~40세(21.3%), 41세~50세(20.4%)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고, 여성 피의자는 41세~50세(23.8%), 21세~30세(20.6%), 31세~40세(16.9%) 순임.
- [그림 3]을 살펴보면 스톡킹 범죄 피의자는 20세 이상 성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성인 중심의 범죄 구조이며,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기보다는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범죄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스톡킹 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고려할 때, 청년층 중심의 접근에 한정되기보다는 중장년층, 고령층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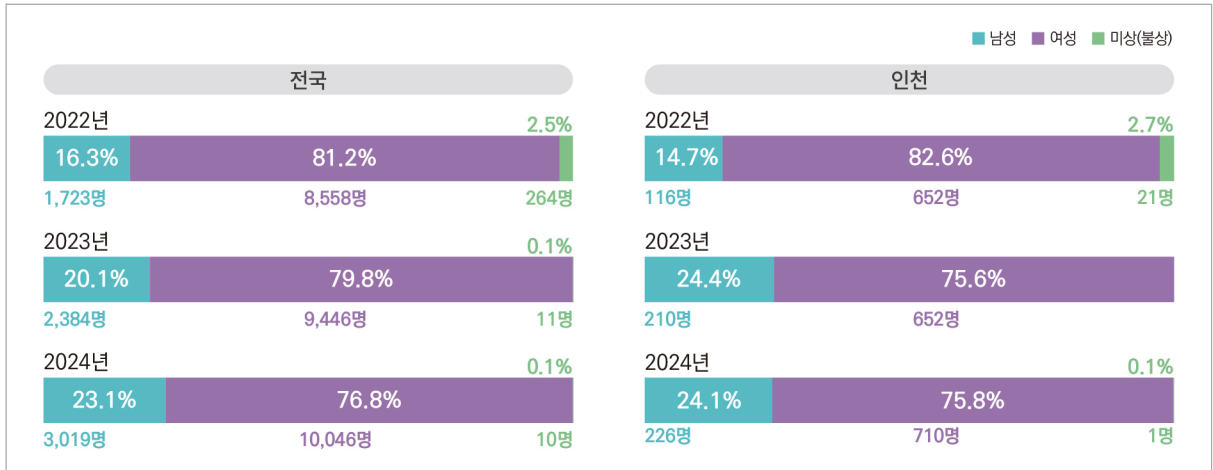


[그림 3] 인천 스톡킹 범죄 피의자 성별·연령별 분포(2024년)

## II 스톡킹 범죄 피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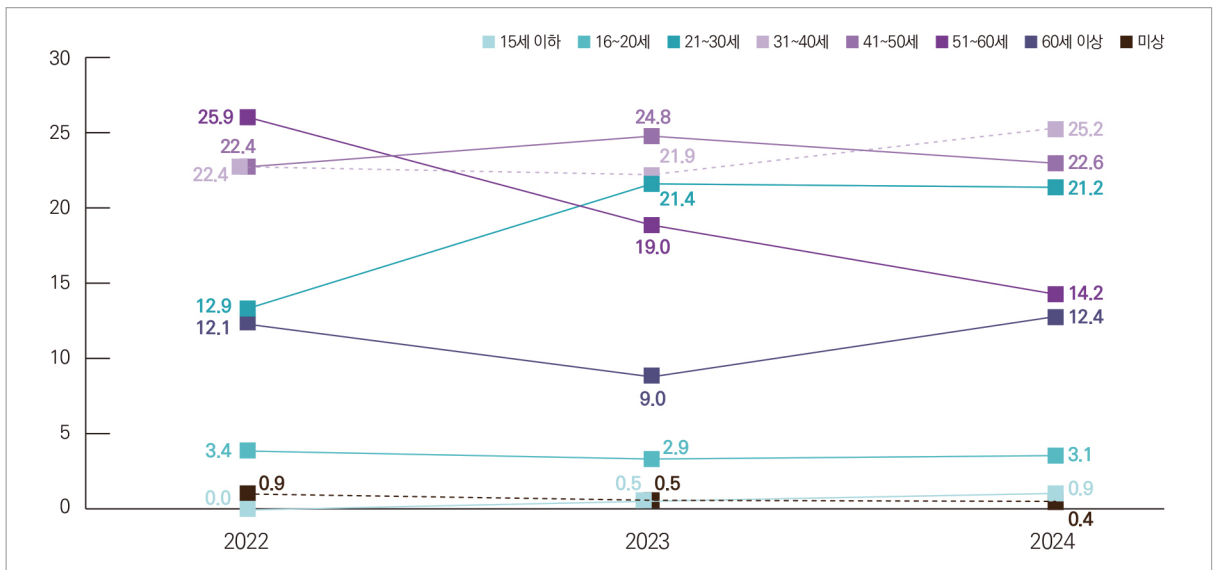
### 1 스톡킹 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분포

- 최근 3년 간 스톡킹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전국과 인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피해자의 3/4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스톡킹 범죄가 성별에 따른 폭력 구조라 할 수 있음.
- 전국 여성 피해자 비율은 2022년 81.2%에서 2024년 76.8%로 감소하였고, 인천은 같은 기간 82.6%에서 75.8%로 감소 추세를 보임. 반면 전국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2년 16.3%에서 2024년 23.1%로 약 6.8%p 증가하였으며, 인천은 2022년 14.7%에서 2024년 24.1%로 9.4%p 증가 추세를 보임.
- [그림 2]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스톡킹 범죄 통계에서 피해자 수가 피의자 수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스톡킹 범죄는 동일 사건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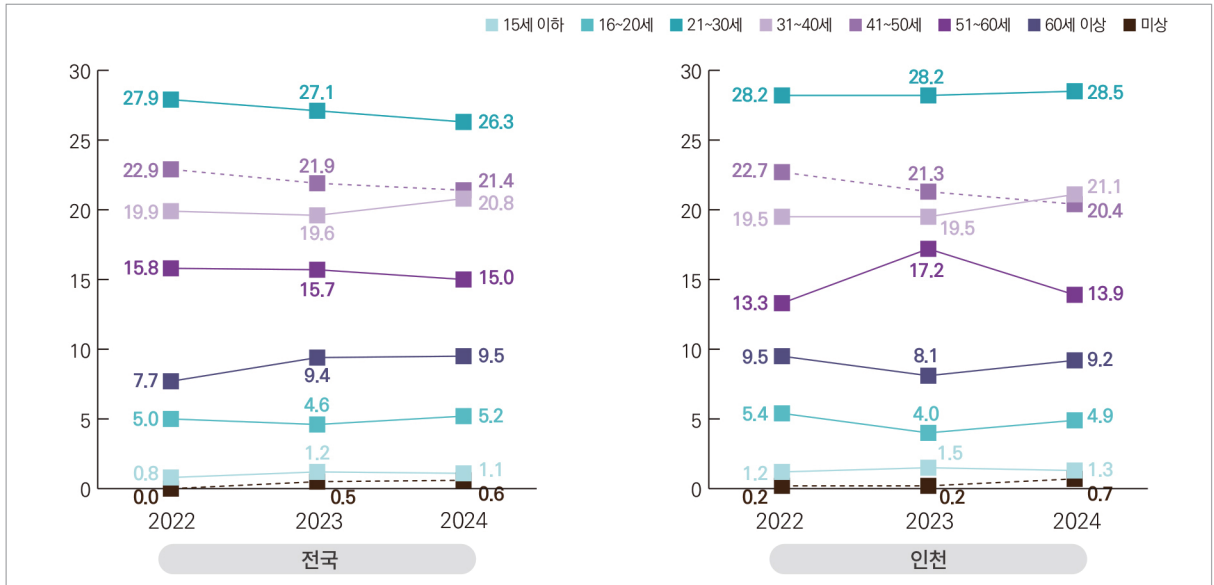
[그림 4] 스토킹 범죄 피해자 성별 분포

- 2022년 기준, 인천의 남성 피해자(116명)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1세~60세가 2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31세~40세(22.4%)와 41세~50세(22.4%) 순으로 나타남. 2024년 기준(226명)으로는 31세~40세(25.2%), 41세~50세(22.6%), 21세~30세(21.2%) 순임.
- 최근 3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51세~60세의 비율이 25.9%에서 14.2%로 감소한 반면, 21세~30세는 12.9%에서 21.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연령 분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인천 스토킹 범죄 피해자(남성) 연령별 분포

- 2022년 기준 전국 스토킹 여성 피해자는 8,558명(81.2%)으로, 연령대로는 21세~30세(27.9%), 41세~50세(22.9%), 31세~40세(19.9%) 순으로 20대 여성 피해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인천 역시 여성 피해자 652명(82.6%) 중 21세~30세(28.2%), 41세~50세(22.7%), 31세~40세(19.5%) 순으로 전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2024년 기준 전국 스토킹 여성 피해자는 10,046명(76.8%)으로, 연령대로는 21세~30세(26.3%), 41세~50세(21.4%), 31세~40세(20.8%) 순으로 유사한 구조가 유지되었으며, 인천의 경우 여성 피해자 710명(75.8%) 중 21세~30세(28.5%), 31세~40세(21.1%), 41세~50세(20.4%)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최근 3개년간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는 20대에서 높은 비율이 지속되는 반면 남성 피해자는 연도별로 주요 피해 연령층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따라서 향후 성별·연령별 피해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변화 양상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그림 6] 전국 및 인천 스톡킹 범죄 피해자(여성) 연령별 분포

## 2 스톡킹 범죄 피해자 - 가해자 관계 유형

- 전국 기준 스톡킹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친인척 외' 관계가 전체의 약 75% 내외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전 애인' 관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스톡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애인 및 전 애인인 경우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스톡킹 범죄는 상당 부분 연인 간 관계를 형성, 유지, 이별 이후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 역시 전국과 유사하게 연인 관계를 중심으로 스톡킹 범죄가 발생됨. 하지만 2023년 대비 2024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관계 유형에 있어서 변동이 확인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애인 관계의 비중은 2023년 10.0%에서 2024년 7.9%로 감소한 반면, 직장내 관계는 2023년 2.4%에서 2024년 3.7%로 가족-친인척 관계는 2023년 11.3%에서 2024년 12.4%로 소폭 증가함.
- 이는 인천의 스톡킹 범죄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생활공간-직장 등 사회적 관계형'의 스톡킹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즉, 연인관계에서의 스톡킹뿐 아니라 가족, 이웃, 직장 등 관계형 스톡킹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활권 중심 예방대책, 직장 내 보호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 스톡킹 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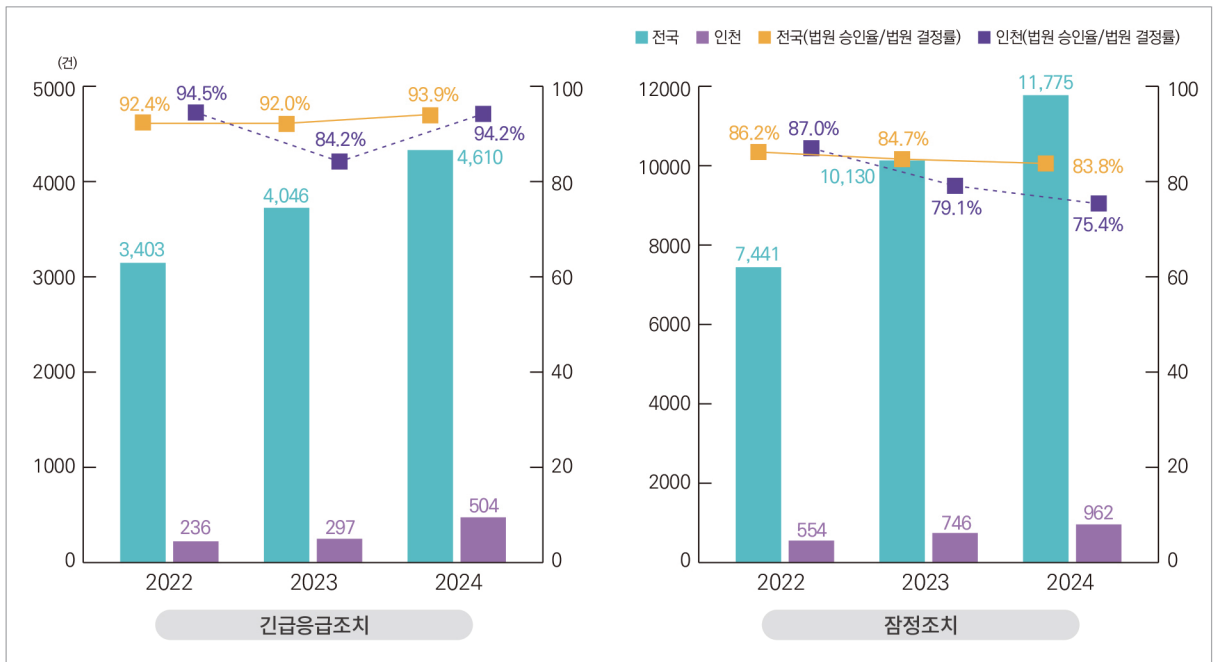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계	피해자 없음	가족-친인척			가족-친인척 외									전혀 모르는 사람	법인, 국가	
			동거 유	동거 무	소계	애인	전애인	직장내 관계	친구, 선후배	거래 상대	이웃	(피)보호 감독인	온라인	기타			
전국	2023	11,382 (100.0)	32 (0.3)	75 (0.7)	1,048 (9.2)	8,665 (76.1)	821 (7.2)	4,489 (39.4)	336 (2.9)	628 (5.5)	273 (2.4)	1,043 (9.2)	10 (0.1)	124 (1.1)	941 (8.3)	1,544 (13.6)	18 (0.1)
	2024	12,658 (100.0)	36 (0.3)	99 (0.8)	1,282 (10.1)	9,440 (74.6)	811 (6.4)	4,667 (36.9)	438 (3.5)	684 (5.4)	388 (3.1)	1,184 (9.4)	9 (0.1)	166 (1.3)	1,093 (8.6)	1,722 (13.6)	79 (0.6)
인천	2023	821 (100.0)	2 (0.2)	7 (0.9)	85 (10.4)	617 (75.2)	82 (10.0)	285 (34.7)	20 (2.4)	54 (6.6)	14 (1.7)	88 (10.7)	2 (0.2)	9 (1.1)	63 (7.7)	108 (13.2)	2 (0.2)
	2024	889 (100.0)	2 (0.2)	11 (1.2)	100 (11.2)	670 (75.4)	70 (7.9)	311 (35.0)	33 (3.7)	42 (4.7)	25 (2.8)	84 (9.4)	1 (0.1)	11 (1.2)	93 (10.5)	102 (11.5)	4 (0.4)

### III 수사기관의 사법처리 현황 및 구조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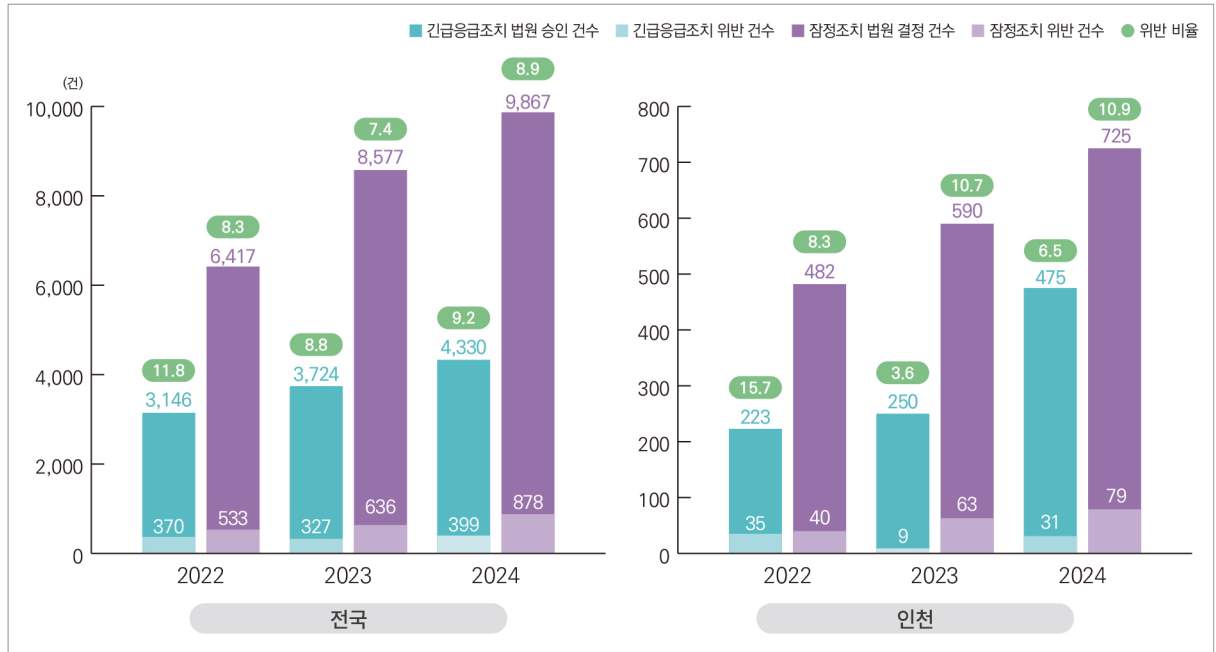
#### 1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신고 직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잠정조치 제도가 있음. 최근 3개년간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는 2022년 3,403건, 2023년 4,046건, 2024년 4,610건으로 최근 3년간 35.5% 증가하였으며, 잠정조치 신청건수는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58.2% 증가하였음.
- 인천의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는 2022년 236건, 2023년 297건, 2024년 504건으로 최근 3년간 113.6% 증가하였고, 잠정조치 신청도 2022년 554건, 2023년 746건, 2024년 962건으로 73.6% 증가함.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 증가와 함께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경찰 등 사법기관의 초기 개입도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승인율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4년에는 인천이 전국보다 소폭 높은 승인율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인천(84.2%)이 전국(92.0%)보다 7.8%p 낮게 나타남.
-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률은 전국과 인천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의 감소세가 더 두드러짐. 특히 2024년 인천(75.4%)은 전국(83.8%)보다 8.4%p 낮은 수준으로, 전국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7]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 또한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승인건수 대비 위반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2022년 11.8%, 2023년 8.8%, 2024년 9.2% 수준으로 나타남. 인천의 경우 2022년 15.7%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3년 3.6%, 2024년 6.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법원의 잠정조치 승인건수 대비 위반 건수 비율은 전국의 경우 2022년 8.3%, 2023년 7.4%, 2024년 8.9% 수준인 반면, 인천은 2022년 8.3%, 2023년 10.7%, 2024년 10.9%로 전국 평균보다 위반 건수의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 줌.
- 잠정조치 위반 비율의 증가는 법원의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잠정조치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스토킹 범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 현황

## 2 검찰 송치율

- 수사기관의 사법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검찰 송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불송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전국 검찰 송치율은 2022년 64.3%, 2023년 68.5%, 2024년 73.3%로 3년간 9%p 증가함. 반면, 불송치율은 같은 기간 34.4%에서 24.6%로 하락하여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매년 약 3~4% 높은 송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 연계에 있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인천은 스토킹 범죄의 높은 송치율에도 불구하고 구속 비율은 감소하고 불구속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스토킹은 초기에 경미해 보일수 있지만 반복적·지속적인 폭력 피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과 2차 피해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음(성경숙, 202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천 지역은 송치 이후 불구속 수사의 경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2> 스토킹 범죄 수사기관의 사법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2							2023							2024						
	계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계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계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소계	책임송치		기타				소계	책임송치		기타				소계	책임송치		기타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전국	9,999 (100.0)	6,429 (64.3)	331 (3.3)	6,098 (61.0)	44 (0.4)	3,439 (34.4)	96 (1.0)	11,592 (100.0)	7,939 (68.5)	352 (3.0)	7,525 (64.9)	69 (0.6)	3,478 (30.0)	175 (1.5)	12,995 (100.0)	9,528 (73.3)	386 (3.0)	9,094 (70.0)	48 (0.4)	3,192 (24.6)	275 (2.1)
인천	741 (100.0)	465 (62.8)	22 (3.0)	443 (59.8)	3 (0.4)	261 (35.2)	12 (1.6)	826 (100.0)	593 (71.8)	10 (1.2)	578 (70.0)	5 (0.6)	228 (27.6)	5 (0.6)	916 (100.0)	710 (77.5)	17 (1.9)	690 (75.3)	3 (0.3)	179 (19.5)	27 (2.9)

## IV 정책적 시사점

### 1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스토킹 범죄는 애인,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나, 직장 내 관계, 이웃, 친구, 선후배 등 다양한 관계 유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 유형별 스토킹 범죄 발생의 맥락과 위험 수준의 패턴 등을 분석하여 촘촘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인천은 불구속 처리 비율이 높고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 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2026년 4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함께 신설됨. 따라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스토킹 실태 파악의 한계와 통계 체계 개선 필요

- 경찰청 범죄통계는 스토킹 범죄의 발생 규모와 피해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나, 스토킹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과 어떠한 맥락에서 연결되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발생 맥락과 피해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 유형 간 중복 피해와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 스토킹 범죄의 조기 인지 및 신속한 도움 요청을 위한 환경 조성

- 스토킹은 초기에 범죄로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동에서 시작되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2025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실태조사(김미선, 2025)' 결과,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과정에서 스토킹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나, 이를 별개의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초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주변인(가족·친구·동료 등)의 신고 활성화 및 상담 채널 확대를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IFWF 정책브리프



- IFWF Brief(No.88) 인천 여성 단기일자리, 가교를 넘어 도약으로
- IFWF Brief(No.87) 인천광역시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IFWF Brief(No.86) 인천광역시 2023회계연도 성인지예결산서 : 심층분석과 정책과제
- IFWF Brief(No.85) 신중년 여성 이·전직 경력연계 상담도구 개발 : 전략과 실천
- IFWF Brief(No.84) 일·삶·쉼의 가치를 더하는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기본계획(안)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책브리프를 찾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채널 추가하세요.

인천여성가족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Tel 032) 511-3141 Fax 032) 518-3828  
www.ifwf.or.kr COPYRIGHT(C) INCHEON FOUNDATION FOR WOMEN&FAMILY ALL RIGHT RESERVED

